

尹, 진술 거부·2차 조사 불응...체포적부심 결과 촉각

‘내란 수괴’ 혐의 체포尹대통령 이틀째 조사 거부
“할 얘기 다 했다” 통보...공수처 수사 비협조 일관
체포적부심사도 출석 안해 변호인 3명만 나와 진술
尹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장 등 내란 혐의 고발

지난 15일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첫날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데 이어, 16일 2차 조사에 불응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대신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통문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도 이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는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윤 대통령 청구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30분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에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공수처 측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총 3명이 법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계엄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로 법률자문을 했던 석 변호사는 그동안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으나, 이날 법원에 선임계를 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와 변호인들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관할 위반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은 영장 심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를 위해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이첩해야 하는데, 중앙지검은 대응 범의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을 위반해 무효라는 주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법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한 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주거지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30조가 근거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효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2면에 계속



구치소 향하는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밤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1차 조사 때 진술을 거부한 윤 대통령은 체포 이틀째인 16일 건강상의 이유로 공수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GGM 주주단 “파업 장기화시 자본 회수·사업장 폐쇄”

상생협정 준수 촉구 “주주 이익 침해시 강경 대응” 경고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주주단이 노조 파업 장기화 시 자본 회수, 사업장 폐쇄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GGM 주주단은 1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8일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중재 조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해 유감스럽다”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주주단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파업이 지속될 경우 GGM의 설립 목적과 경영 지속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단은 “GGM 설립 당시 노사민정이 체결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를 준수해달라”며 “이는 GGM 경영의 기본 원칙이자 사회적 약속으로 구성원 모두가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단은 또 “경영진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그동안 7차례의 노사 협상을 진행했다. 다만 노조가 요구한 7% 임금 인상, 노조 활동 비용 지원, 모든 인사 노조 합의 등은 과도한 요구라고 판단해 수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주단은 “생산직 근로자의 초임은 3천700만원 이상이며 사회적 임금을 포함하면 4천200만원 수준으로 이는 광주 지역 동종업계와 비교해도 결코 낮지 않은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주단은 “노조가 장기간쟁을 이어갈 경우 생산 차질로 인한 수출 물량 감소, 협력업체의 매출 급락, 완성차 업체의 추가 투자 중단 등 심각한 경영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주주단은 “최악의 경우 투자회수와 사업장 폐쇄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당한 요구와 무책임한 파업으로 GGM의 경영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주주단은 “GGM은 광주시민의 기업으로 시민 세금과 지역 기업들의 지분이 66%를 차지한다”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주주단은 협정서 위반으로 인한 주주 이익 침해에 대해서는 투자금 회수와 민형사상 법적 책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GGM 노조는 이날 낮 12시 20분부터 4시간 동안 조립·도장·보전시설 등 3개 부서 조합원 140여명이 2차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변진기 기자

Today
‘어등산복합소핑물’ 조성 순항 4면
‘뽕’은 때를 알려주는 예지의 학문 14면
‘V13’ 담금질 KIA美 전훈 떠난다 16면
/김재정 기자·연합뉴스

제12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당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 할 기회!
Redesign your life!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TV

제12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 지원자격** 기업경영진 및 관리자, 지자체장 및 의원, 기관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계 전문가 등
- 모집인원** 00명 내외
- 교육기간** 2025년 3월 25일(화) ~ 2025년 12월 종강(연 16회)
- 강의시간** 격주 화요일 오후 7시 ~ 8시 30분(6시부터 식사)
- 강의장소**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 전행방법**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세금계산서 요청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수강료 : 380만원(부가세 포함)
- 입금계좌 : 광주은행 (016-107-391900 : (주)광주매스컴)
- 접수마감일 : 2025년 3월 14일(금)
- 문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9)
-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

수강생 모집요강

■ 주요강사진 (예정)

조영구 방송인	최광현 교수 한세대 상담대학원	한민 교수 문화심리학자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정희원 교수 아산병원 노년내과	김봉중 교수 전남대학교 사학과	유성환 교수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학부
권일용 교수 동국대학교 경찰사범대학원	오정해 국악인	이승재 영화평론가	임진모 음악평론가	최윤희 대표 2M커뮤니케이션	한다혜 박사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